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와 {이}의 문법적 지위

박 철 우

Abstract

Park, Chulwoo. 2006. 11. The Syntactic Structure of ‘*ida*’ Constructions and the Grammatical Status of the Morpheme {*i*}. *Korean Linguistics* 33, 235-263.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syntactic structure of ‘*ida*’ constructions on the basis of their semantic interpretations and to evaluate the syntactic function of the morpheme {*i*}. We took note on the syntac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ich {*i*} makes, among several types of ‘*ida*’ constructions and found out that {*i*} turns the precedent element of it into the predicate of the clause. Then the remaining question is what the grammatical status of {*i*} in Korean grammar is, and we conclude that we can count it as one of the pre-final endings in the traditional terminology.

주제어: ‘이다’(*ida*), 서술격조사(predicative case marker), 통사적 접사(syntactic affix), 선어말어미(pre-final ending), 서술어화사(predicativizer)

1. 서론

‘이다’ 구문의 기본 형식은 ‘X1-가 X2-(이)다’로 단순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¹⁾ 하지만 구체적인 통사구조와 {이} 또는 {이다}의 문법

1) 남기심(1986) 등 N1과 N2의 관계로 기술하고 있는 논의들을 원용할 때는 그대로, N1과 N2를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다’ 구문의 선행 요소가 명사인지 명사구인지 또는 다른 범주의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때는 내내 X1과 X2로 통합하여 지칭할 것이다.

적 지위가 온전히 밝혀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X1이나 X2의 통사 범주를 명확히 제시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에 대해서도 합치된 의견이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장의 통사구조는 그 의미구조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를 분류해 보고 그 속에서 {이}의 문법적 기능과 지위를 적절히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다’ 구문의 유형과 의미해석

2.1 ‘이다’ 구문의 유형과 의미 기술

남기심(1986)은 ‘이다’ 구문을 1)분류문, 2)유사 분류문, 3)비분류 ‘이다’ 문장(이하 비분류문)이라고 하여, 세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 (1) ㄱ. 고래가 포유동물이다. (분류문)
- ㄴ. 침묵이 금이다. (유사 분류문)
- ㄷ. 동쪽이 산이다. (비분류문)

(1ㄱ)과 같은 분류문에 대해 그는 ‘N2(=X2) 자리의 명사가, N1(=X1) 자리의 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의 상위집합을 지시하는 명사여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즉 ‘N2의 명사는 N1 명사의 소속, 곧 그것이 어느 유(類)에 속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분류문의 특징으로, N1과 N2 명사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주어 자리의 명사가 상위개념의 것이 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데((2ㄱ)), 다만 관형어에 의해, 주어 자리로 옮긴 N2의 총칭성이 특징적인 것으로 바뀌면 문법성

이 부여된다고 한다((2ㄴ)).

- (2) ㄱ. *포유동물이 고래다.
 ㄴ. 그 포유동물이 고래다.

(1ㄴ)은 (1ㄱ)과 유사한 구문이라고 생각되지만, N1과 N2 사이에 아무런 어휘적 제약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화자의 의도에 의해 은유적으로 그러하기만 하면 성립되는, 일시적으로 분류문의 성격을 가지게 된 특수한 구문으로 보고 있다.

(1ㄷ)은 일반적으로 분류문들이 ‘N1의 N2’로 꼴바꿈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고래의 포유동물, *침묵의 금), 이 경우는 가능하므로(동쪽의 산) 일반적인 분류문과 성격이 다르며, 또 N1과 N2의 자리바꿈이 가능하며(‘산이 동쪽이다’), (1ㄷ)의 경우, ‘동쪽에 산이 있다’와 같이 전혀 다른 형식의 구문에 대응한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N1(‘동쪽’)과 N2(‘산’) 사이에 아무런 체계적인 대응 관계가 설정될 수 없는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문맥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3)을 비롯한, 그 정확한 조건을 밝히기 어려운 다양한 예들을 포함하고 있어, 포괄적으로 비분류적인 성격의 것이라 하여 한 유형을 삼은 것이다.

- (3) ㄱ. 갑: 순호가 아니라 영수가 학교에 다니지?
 을: 예, 영수가 학교입니다. 순호는 무역회사구요.
 ㄴ. 갑: 누가 밥을 하고, 누가 빨래를 하기로 했던가?
 을: 순이가 밥이고, 영순이가 빨래입니다.

위의 세 유형은, ‘이다’ 구문과 관련하여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모두 구체적인 통사의미론적 설명을 요

구하고 있다. 현상적으로는 위의 세 유형이 일반적인 직관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차이의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각 구문의 의미구조에서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다’ 구문의 구체적인 의미해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남기심(1986)에서 제시한 분류문의 성격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분류문은 다시 구체적인 세 하위 유형으로 구분된다.

- (4) ㄱ. 고래가 포유동물이다. → i) 유(類)와 종(種)의 관계
 ㄴ. 내가 심판이다. → ii) N2의 지칭 범위가 N1보다 넓은 관계
 ㄷ. 셋별이 금성이다. → iii) N1=N2

이 세 하위유형의 구체적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ㄱ)은, 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N1과 N2의 자리를 바꾸어서 뜻이 통하려면 N2 앞에 지시관형사 같은 것이 요구되고, (4ㄴ, ㄷ)은 N1과 N2를 그대로 바꾸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 (5) ㄱ. 그 포유동물이 고래다.
 ㄴ. 심판이 나다.
 ㄷ. 금성이 셋별이다.

이러한 분류문의 특징에 대해 그는 (4ㄱ, ㄴ)이 기본 구문이고, (5ㄱ, ㄴ)은 그 문장들의 꼴바꿈(변형)이라 한다. 그러면서도 그 대응하는 문장들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음은 인정하고 있다. 즉 (4ㄱ, ㄴ)에서 N2는 총칭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5ㄱ, ㄴ)에서는 그 주어로 된 N2는 지시관형사 등에 의해 특칭적인 것으로 한정됨으로써 비로소 문법적인 문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4ㄷ)과 (5ㄷ)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을 기본 구문으로 잡기 어려우므로 양쪽이 모두 기본 구문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 풀바꿈 한 것이 아닌 특수한 예라고 설명한다.

2.2 ‘이다’ 구문이 가진 고유한 의미해석의 근원

이제 이상에 주어진 구문들에 대한 기술을 토대로 ‘이다’ 구문의 기본적인 의미해석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다’ 구문의 의미적 특징들은 어디에서 발원하는 것인가? X1 자리와 X2 자리에 주어진 명사 혹은 명사구의 어휘 의미, 그것들의 문법적 기능, {이}의 어휘 의미와 문법적 기능 등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한 가지씩 질문에 답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X1이나 X2의 어휘 의미가 ‘이다’ 구문의 의미해석에 결정적인가? 그 각각의 의미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1ㄴ)과 (1ㄷ)처럼 문맥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의미의 명사들이 그 자리에 올 수 있고, 분류문으로 한정하여 생각해 보더라도 X1과 X2가 각각의 자리에 특정한 의미선택제약을 가지는 명사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X1과 X2 사이의 의미관계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 경우 개념적 의미의 포함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라기보다 위의 남기심(1986)의 설명처럼 자리에 따라 특칭적 또는 총칭적 해석을 받을 수 있는 명사(구)가 달리 요구된다는 식의 구별이 문제라면, 그것은 어휘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통사적 위치와 관련된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물음으로, X1과 X2 자리에 오는 명사(구)의 문법적 기능이 결정적인가? 그런 측면이 있다. 분명히 X1과 X2 사이에는 문법적 선택 관계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의미론에서 말하는 술어-논항 관계가 바로, 논항의 외연이 술어의 외연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하는데 X1

과 X2의 관계는 그런 관계의 전형이고, 그런 점이 X2가 X1의 격과 의미역을 선택하는 데 반영되어 있다. X2가 X1을 요구하는 한 자리 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때 X1은 존재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이}는 어휘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이다’ 구문에서 그러한 의미가 결정적인가? {이}가 어휘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으로 양정석(1996)이 있는데, 그는 {이}를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형용사로 보고 그 의미는 ‘동일시(identification)’로 보아 다음과 같은 의미 표상을 제시하고 있다.

(6) [BE/+ident(x, [AT(y)])]

(6)는 ‘BE’를 통해 ‘이다’ 구문의 상태성을 나타내고 X1과 X2의 외연의 넓이가 어떠한든 그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표상한 것이다. 그는 {이}가 (6)과 같은 기본 의미를 가지지만, 구체적인 외연 범위에서 차이가 해소되는 것은 한국어 화자의 인지구조 속에 있는 추론규칙들에 의해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람이다’에서 ‘철수’와 ‘사람’이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은, 우리가, ‘철수’가 징표(token)임을 알고, 그것이 ‘사람’ 유형(type)의 한 사례와 같다는 의미 표상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추론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유형은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추론규칙이 한국어 화자의 머릿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의미 표상과 통사구조의 차이가 분명하면 그 차이를 추론규칙이 메워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추론에 의지할 만큼 그 구별이 통사적으로 표시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러한 의미 차이가 전혀 통사적인 현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인가? 본고는 앞서 ‘이다’ 구문 유형 기

술의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차이를 통사적으로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가 과연 형용사로서 두 자리 논항을 취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앞에 오는 요소는 {이}에 의해 선택되는 것으로 보이는 격조사를 취할 수 없고 음운적으로도 선행 자음을 구개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선행요소와 긴밀하게 결합한다. 즉 선행요소에 의존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가 두 자리의 논항을 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가 후행 요소에 덧붙여 그것을 서술어로 만드는 쪽으로 보는 것이 언어 현상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다고 해서 X1과 X2 사이의 동일성 의미가 더 훼손되지 않는다. 실제로 ‘철수가 사람이다’에서 ‘철수가 사람의 한 예와 동일하다’는 해석보다는 ‘철수가 사람임의 속성을 가진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러우며, ‘P(a)’와 같이 표시할 수 있는 논리적 주술관계가 바로, ‘a는 P의 속성을 가진다’ 또는 ‘a는 P인 것들의 집합의 한 원소’라는 해석으로 일관성 있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선택제약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는데, (7ㄱ, ㄴ)이 비문인데도 (7ㄷ)에 문제가 없는 것은, X1의 선택제약이 {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X2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 (7) ㄱ. *고래가 학생이다.
 ㄴ. *책상이 포유동물이다.
 ㄷ. 고래가 포유동물이다.

마지막 물음으로, {이}의 문법적 기능이 ‘이다’ 구문의 의미를 결정하는가? 이는 위의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과도 관련된다. X1과 X2의 관계가 ‘이다’ 구문의 의미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살펴보면, {이}에 기인한다고밖에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분류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8) ㄱ. 철수가 학생이다.
 ㄴ. *Ø/그 학생이 철수다.
 ㄷ. **학생이**_F 철수다.

(9) 철수가 그 학생이다.

(8)에 주어진 세 문장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가? 본고에서는 그 의미 표상과 통사구조가 분명히 다르다는 직관을 가진다. (8ㄱ)의 의미는 결코 (9)와 같지 않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그’라는 지시관형사가 보여주는 만큼, 단순히 화용적 해석의 영역으로 미루어둘 수 없다. (9)와 의미가 같은 것은 오히려 (8ㄴ)이며, 따라서 (8ㄱ)와 (8ㄴ)도 그 의미가 결코 같지 않고 그 차이가 화용적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사실은 (8ㄴ)에서도 지시관형사의 생략이 어색한 만큼, 역시 통사적인 증거로 드러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화용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때로 (8ㄴ)의 지시관형사 없는 문장이 비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 (10) ㄱ. A: 어제 우리가 만난 학생과 경찰 중에 누가 철수냐?
 B: **학생이** 철수다.

- ㄴ. A: 철수가 경찰이고, 영호가 학생이지?
 B: 아니, **학생이** 철수고, 경찰이 영호라니까.

(8ㄷ)이 그와 같은 경우로서 (10)과 같은 문맥에서 실현되는데, 이 경우를 두고 (8ㄱ)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역시 의문이다. (8ㄷ)에서 ‘학생이’는 초점(focus)이라 할 수 있고 초점은 문맥

에 민감한 현상이어서 때로 화용적인 영역의 문제로 넘겨지지만, 초점이 주어진 문장 역시, 어순이나 악센트 등에 의해 (8ㄱ)과 같은 단순 서술문과는 통사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8ㄱ-ㄷ)은 모두 의미 표상의 측면에서나 통사적으로나 동일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또 (8)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에 직접 선행하는 X2는 비지시적일 수 있지만 X1은 항상 지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 X1이 지시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표지가 없지만 그것은 그 자리 때문에(통사적으로) 주어진 지시성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시관형사가 사용되거나 X1이 대명사나 고유명사이면 어휘적으로 지시성이 확인될 수 있지만 이때의 지시성의 출처는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어휘들의 의미 특성보다는 그것이 주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8ㄴ)이 정문이 되기 위해 ‘학생’이 상황 속에서 지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이다.

다른 예로, 위의 (4ㄴ, ㄷ)과 (5ㄴ, ㄷ)을 다시 보자. (11)과 (12)로 다시 가져와 재배치하였다.

- (11) ㄱ. 내가 심판이다. (=4ㄴ))
 ㄴ. 심판이 나다. (=5ㄴ))

- (12) ㄱ. 셋별이 금성이다. (=4ㄷ))
 ㄴ. 금성이 셋별이다. (=5ㄷ))

(11ㄴ)이 (8ㄴ)과 달리 지시관형사를 따로 요구하지 않고도 적격한 문장이 되는 것은 왜일까? (11)이 (8)과 달리 도치가 허용되는 ‘이다’ 구문이기 때문인가? 아니다. ‘심판’이라는 명사가 ‘학생’과는 달리 관계적인 성격을 가진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심판’은 그 자체로 무엇인가의 속성이 되는 명사라기보다는 ‘특정 경기’와 관련된 심판으

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은 ‘심판’이라는 어휘의 내재적 의미 특성이다. ‘심판’이라는 명사가 ‘특정 게임이나 경기’에 해당하는 별도의 논항을 취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박철우, 2002). 그 논항은 국어 문법의 대부분의 성분들이 그렇듯이 담화상에서 명백하다면 생략될 수 있다. 따라서 (11ㄴ)은 지시대명사가 없더라도 그 지시성이 어휘적으로 요구되며 비록 생략되었지만 주어로서 요구되는 지시성을 충족하고 있다. 어쨌든 그 지시성은 정관사가 없는 국어에서는 구조적으로 파악되는 것 이상으로 달리 표현되지 않지만, 그 구조적 요구를 국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12ㄱ)과 (12ㄴ)도 마찬가지로 각각 그 주어는 고유명사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 특성에 의해 지시성을 확보하고 있고 주어에 대한 그 자체의 어휘적 의미 특성으로 지시성 요구가 충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언급하였듯이, 어휘적 지시성과 구조적 지시성 중 그 지시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8ㄴ)에서와 같이 구조적 지시성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반대로, {이}에 직접 선행하는 X2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보자. X2는 그 지시성과 무관하게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 (13) ㄱ. 저 아이가 철수다.
 ㄴ. 셋별이 금성이다.
 ㄷ. 범인이 나다.

(13ㄱ)을 보면, 이 문장에서 ‘철수’가 고유명사지만 지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저 아이’는 지시성이 있지만, ‘철수’는 그 이름만을 가리키는 메타언어적 용법이다. 즉 ‘저 아이가 이름이 철수다’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물론 청자가 ‘철수’에 대해 그 이전에 많이 들어보았으면 지시성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아무리 양보해도 그 지시성은 그 어휘적

인 범위를 넘지 않으며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X2와 결합하여 서술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X2가 어휘적으로 지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구문 전체로 보아서는 그것이 서술어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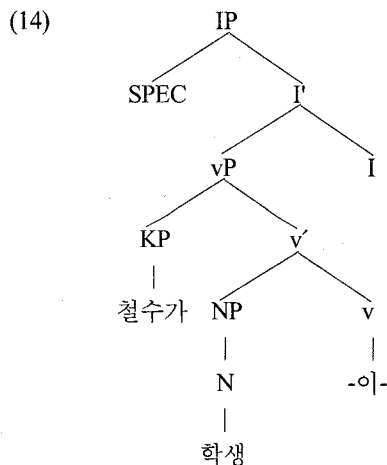
따라서 {이}의 기능이 ‘이다’ 구문의 의미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만들어낸 서술어의 주어는 통사적으로 지시성을 요구받는다고 보는 것이 ‘이다’ 구문의 의미해석과 통사구조를 적절히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해석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3.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

우리는 앞 절에서 ‘이다’ 구문의 유형과 그 의미해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국어에서 통사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즉 통사적으로 의의 있는(syntactically significant) 설명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주어 자리에는 지시적인 요소만 올 수 있다는 사실과 {이}에 선행하는 요소는 그 어휘적 지시성과 무관하게 서술어로 이해된다는 사실로부터 ‘X1-가’와 ‘X2-이-’는 주어와 서술어로서 직접구성성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화에 따르면, X1은 내부적으로 단순한 주격 명사구 이상의 것이 된다. 지시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와 직접 결합하는 범위의 요소들은 어휘적으로 지시적인 범주의 것이라 해도 문장 내에서는 지시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이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국어에는 관사와 같은, 지시성을 구현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어휘를 가진 문법범주가 없어서 그러한 구조적 의미를 문법 속에서 다루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별도로 어휘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차원의 지시성이 아님은 앞 장의 논증을 통해 확인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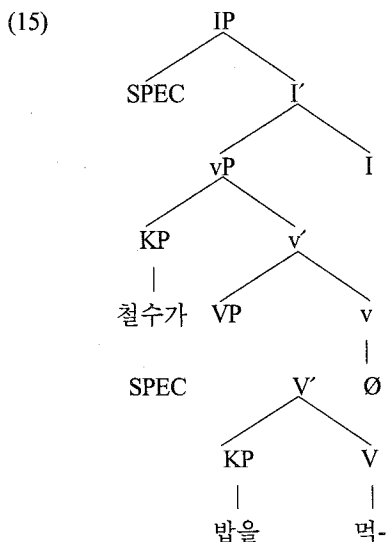
수 있다. 관사 범주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한정관사(정관사)는 지시성을 표시하지만 부정관사는 때로 지시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특정적 해석) 그렇지 않기도 하여(불특정적 해석), 구조가 관여하는 지시성 문제는 어휘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도 아니다.²⁾

이상의 논의에 따라, 잠정적인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를 상징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는 ‘서술성’이 하나의 기능범주로 상징될 필요가 있고 ‘NP+{이}’가 서술어구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적인 동사구를 보어로 취하는 서술어구의 구조를 보여주는 (15)와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2) En(1991) 등 참조.



더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들은 차치하고, VP가 곧 서술구를 이루는 것으로, 즉 서술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던 고정관념을 벗어나, ‘Ø’ ‘-이-’, ‘-답-’, ‘-하-’, ‘-갈-’ 등을 서술성 기능범주(v)에 속하는 서술어화사(predicativizer)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구조들이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다. 그럴 때 X1 주어는 기능범주 v에 의해 묶이면서 주격을 배당받게 되고 그 지시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주어 KP의 내부 구조에, NP에 의해서든 NP의 수식어에 의해서든 지시성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설명은 앞 절에서 논의되어온 국어의 언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³⁾

3) 지시범주(DP)를 상징하는 논의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국어에서 D 범주에 속하는 어휘를 상징하기 어려우므로, 본고에서 그러한 이론적 논의까지 고려하지는 않기로 한다.

4. {이}의 문법적 지위

이제 논의의 초점을 {이}의 형태소로서의 자격과 문법범주에 대한 논의로 좁혀 보려 한다. 이 논의는 문장구조와 의미해석을 대비시키는 통사·의미론의 측면보다는 그 단위성을 문제 삼는 형태·통사론의 측면을 간과하기 어렵다. 먼저 기존 논의를 정리해 보고 앞 절들의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의 문법적 지위를 판별하고자 한다.

4.1 {이}에 관한 기존 논의와 문제점

{이}의 단위성에 대한 논의는, 그것을 접사로 보는 입장(접사설)과 형용사로 보는 입장(형용사들)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접사설과 형용사설은 다시 각각 주격조사설과 통사적 접사설, 실질용언설과 형식용언설로 나눌 수 있고 각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은 구조 분석을 전제하고 있다.

- (16) 가. 주격조사설: X1-가(/이)X2-(이)O-다
 나. 통사적 접사설: X1-가(/이)X2-(이)-다
 다. 실질용언설: X1-가(/이)X2-O(이)-다
 라. 형식용언설: X1-가(/이)X2-O(이)-다

4.1.1 주격조사설

주격조사설은 최기용(1993) 등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명사구가 ‘명사(혹은 명사 상당어)+조사’로 이루어지며, {이}는 주어, 목적어 등 문장 내 다른 명사구들의 구성과 동일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사로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명사구와 종결어미(위에서는 ‘-다’) 사이에 굳이 다른 용언 어간이 필요하지 않도록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서 쉽게 떠오르는 두 가지

의문은 X2가 어디서 격을 배당받았기에 주격조사를 취하는가 하는 것과 왜 X2 뒤에 ‘가’는 출현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최기용(1993)은 전자에 대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영형 INFL로부터 주격을 받는다는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분포의 구별(상보적 분포), 즉 단어의 끝이나 내부이냐의 구별이 존재하므로 그런 정도의 차이는 날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음을 피력한 바 있다.⁴⁾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이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대개 기본적으로 두 번째 구가 서술어임을 상정하고 있다. 최기용(1993)은 다음 (4)와 같이 {이} 구성의 심층구조를 상정하였다가 접사는 표면에서 적절히 “부착되어야” 한다는, Chomsky(1988)에 의해 일반화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보]_{NP}가 I 자리로 이동하여 N-I 복합을 구성하고 이것이 다시 C로 이동하여 N-I-C 복합체를 구성한다는 설명을 시도하였다.

(17) [[[[철수]_{NP} [[바보]_{NP} [Ø]_I]_{I'}]_{IP} [다]_C]_{C'}]_{CP}

(17)이 보여주듯이 ‘바보’는 ‘철수’라는 NP와 자매 관계를 이루는 I' 속에 출현하여 NP ‘철수’에 대해 서술어가 됨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⁵⁾

-
- 4) 우순조(2000, 2001)의 입장도 주격조사설로 분류되곤 하지만 그의 입장은, {이}가 체언에 붙는 문법표지라고 보기 때문에 전통적인 용어를 따라 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 그것이 ‘주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 5) 우순조(2001, 354:7ff)는 이와 같은 계층적 분석을 하지 않으면서도 ‘철수가 부자(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철수’가 주어이고 ‘부자’가 서술어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두 명사구의 어순이 뒤바뀌는 경우 즉 ‘부자가 철수(이)다’의 경우에도 그 관계는 바뀌지 않으며 두 문장의 의미가 같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그 두 문장의 의미가 같지 않음을 보인 바 있다. 여기서는 그 역시 한

이러한 주격조사설에서는 그가 이와 같은 구조를 상정하면서 I에 영형태의 요소를 상정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I는 비존대, 현재, 직설의 무표적 I 상당 요소들과는 또다시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I가 된다. 그 기능을 상정하자면 그것은 결국 그 I 아래 오는 동사 없는 명사구를 서술어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⁶⁾ 이렇게 구체적이고 특수한 기능을 가진 I를 음가 없는 영형태로 남겨두는 추상적인 설명을 하면서, 서술어 속에 출현하여 주격으로 표시되는 것이 그다지 의미 없게 느껴지는 ‘-이’를, 그것도 ‘-가’라는 변이형도 가지지 못하는 ‘-이’만을, 영형태의 특별한 I로부터 주격을 담당받는 특별한 주격조사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이해적인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옳다면 ‘바보(이)다’ 그 자체도 I에 의해 주격이 배당된 온전한 문장으로 이해되어야 할 텐데 필자의 직관에는 그렇지 않다. 게다가, 그런 INFL이 두 개의 명사구에 주격을 배당하는 것이 다른 이중주어 구문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다른 이중주어 구문의 경우에도 그런 분석이 일반적 분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쪽을 서술어로 보고 있다는 점만을 확인해 둔다.

즉 그의 입장은 조사의 격에 의해 문장 성분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 아니며 그저 체언에 붙는 문법표지 중에 ‘-이/가’가 있고 그 표지는 성격이 화용적(화용격)이며 그런 면에서 {이} 구성의 경우 앞뒤의 구들이 대등하다고 본다. 그렇게 볼 때 주어나 서술어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마도 그 지시성 정도에 대한 화자의 느낌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우리는 앞서 (8ㄷ)과 같이 초점이 주어진 예가 (8ㄱ)과 의미가 대등할 수 있음은 언급한 바 있지만 그 두 구문도 초점이 주어진 문장과 안 주어진 문장으로서 기능이 다르며 (8ㄴ)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짐을 보였었다. 주어-서술어 관계가 화용적으로만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6) 결국 우리가 (14), (15)에서 ‘v’로 표시한 기능범주와 다르지 않다.

4.1.2 통사적 접사설

통사적 접사설은 고창수(1992), 시정곤(1992, 1993), 안명철(1995) 등에서 주장된 것인데, 그 동기는 {이}가 그 앞에 오는 체언적 요소에 결합하여 그것을 용언화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규칙을 파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는 차원이 아니어서, 기존의 파생 개념과 달리 통사적 차원일 뿐이므로 이를 ‘통사적 용언화(파생) 접미사’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고창수, 1985:267).⁷⁾ 이 입장은 국어의 문법 체계에서 전성어미로 취급되는 요소들(-(-으)ㄴ, -(으)ㄴ 등)과 인용조사 {고}, 후치사 등 핵에 직접 접미되지 않고 핵 이상의 투사 단위에 접미되는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에 대한 일반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국어 문법의 재편을 기대하는 배후의 이론적 입장과 함께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언어에서 어휘화(단어의 자격을 가짐, 즉 단어 단위화)가 차지하는 의미를 지나치게 평가절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시정곤(1993)은 명사구에 대해서 조사를 통사적 접미사라 하고, 조사를 다시 어휘격조사, 특수조사, 구조격조사로 구분하여, 이 가운데 어휘격조사(예컨대, ‘-에게’)와 특수조사(예컨대, ‘-만’)는 어간형성접미사라 하고 구조격조사(예컨대, ‘-의’)는 굴곡접미사라 규정하고 있다. 단어 형성과 관련된 다른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와 관련되는 주장만 추론해 보자면, 결국 명사구 뒤에 {이}가 올 때, 그 {이}는 그 명사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어간형성접미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가 통사적 접사라고 하는 말을 명사구에 대한 논의로 되돌려 다시 {이}를 규정한다면, 그것은 어휘격조사가 된다. 또 체언에 {이}가 붙으면 형용사처럼 된다고 했으니 이는 어휘격조사 중에서 서술격조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⁸⁾

7) 안명철(1995)에는 이와 같은 통사적 접사의 역할 외에 어휘적 접사로 역할을 하는 경우를 따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추가되어 있다.

어떻든 통사적 접사설을 뒷받침하는 위의 다른 요소들과 달리, 생략이 가능한 {이}가 그러한 이론적 논의의 적극적인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사적 접사설의 관심은 {이}보다 먼저 국어문법의 이론적 재정립에 있다고 여겨진다.

4.2 용언설

(16ㄷ, ㄷ)에 나타난 실질용언설과 형식용언설은 모두 {이}가 용언의 어간이라 주장하면서 앞에 오는 체언 상당 어구와는 구별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용언설의 기본적 동기는 체언이 활용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엄정호, 1989:113; 임홍빈, 2005:18). 그러므로 활용 어미가 붙을 수 있는 용언 어간 상당의 요소가 어미에 선행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이}라는 것이다.

용언설은 {이}가 선택하는 논항의 개수와 의미역 배당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앞에 격조사가 오지 못하는 문제와 {이} 자체가 생략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해야 하는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양정석(1996)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가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의미를 (6)과 같이 표상하는 방법을 취했었다. 다른 한편, 임홍빈(1995:25)은 {이}가 ‘정체 밝힘’의 의미 기능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의미론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임홍빈(2005)의 예 (70)).

(18) 지정 형용사 ‘이다’ 구문의 의미론적 특성

지정 형용사 ‘이다’ 구문에서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대상을 문제항이라 하고, 보어의 위치에 나타나는 대상을 해답항이라 할 때, ‘이다’ 구문은 문제항의 정체가 해답항에 의하여 밝혀지는 관계를 시

8) 양정호(2003)도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현하게 된다. 문제항을 CHD, 해답항을 CHR이라 할 때, 지정 형용사문은 CHD가 CHR에 의하여 그 소속이나 성격이나 대상이 밝혀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18)에서 CHD(=CHaracterizeD)와 CHR(=CHaracteRizing)는 일종의 의미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의 선행 구에 아무런 격조사가 올 수 없음에 대해 임홍빈(2005)은, {이}를 형용사로 정해 놓고 그 {이}가 선행 구와 맺는 관계가 반드시 주격 등 특정 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즉 어휘부에서 {이}의 논항 정보로 선행 성분이 명사구임만 명시하면 된다는 입장(임홍빈, 2005:36)이다.⁹⁾ 즉 어휘부에서 지정된 문법격은 없지만 의미역은 ‘특성기술(CHR)’이라는 것이다. 또 양정석(2003:107)은 이에 대해 ‘-답다, 맞다/분명하다/틀림없다, 같다, 비슷하다’ 등도 바로 앞에 어떤 종류의 격조사도 허용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므로 그것이 {이}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며 그러한 동사들이 나타나는 문장들의 공통점은 그 동사들이 ‘양상(modality)’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모든 격은 무표격이고 국어의 {이}, {을} 등의 조사는 모두 보조사로, 의식에 어떤 실체를 부각시키는 비-속성적, 담화·화용상의 의미를 가지는 요소들인데, ‘이-’ 직전의 명사항이 속성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 ‘이-’의 어휘의미로 주어져 있으므로, 이들 보조사의 의미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이들 조사의 실현을 배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당화가 가능하려면 그러한 화용론적

9) {이}가 논항 정보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임홍빈((2005)은 선행 명사구가 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가 형용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못하는) 예들이 많음을 들고 있다: ‘장마(*의) 때문’, ‘비가 오기(*의) 전’, ‘경주(*의) 산(産)’ 등. 그러나 이러한 예들은, 격 부여자가 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증거로서보다는 오히려 이들 구성의 통사론적 독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예로서 더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설명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일반화를 다른 연구자들이나 모국어 화자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화용론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전문적인 의미·화용론적 논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그의 설명이 바로 {이}가 앞에 오는 요소를 서술어화 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언설 가운데 조금 다른 입장으로, 형식용언설이 있다. 형식용언설은 {이}가 용언이기는 하지만 의미역을 가진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실질용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의수(2002b)에 의하면, NP1(=X1)을 요구하는 것은 {이}가 아니라 XP2(=X2)이며, NP1과 XP2가 소절(small clause)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뒤에 시제, 상, 서법을 나타내는 I 범주의 요소가 바로 올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용언 {이}가 그 사이를 매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이}가 실질적 용언으로서 두 개의 논항에 의미역을 부여하면서 자체의 어휘적 의미를 가진다는 입장보다, 후행 XP2가 자체의 논항을 더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예들을 좀더 낮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언제나 후행 XP2가 NP1을 논항으로 요구한다는 설명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여전히 {이} 앞에 조사가 오지 못하는 문제 등 용언설 공통의 풀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용언설은 문법적으로 체언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어미 앞에는 반드시 용언 어간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가 형용사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용언설은 실질형태소가 담화적 요인이 아닌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생략되기도 한다는 특이한 현상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임홍빈(2005:29)은 {이}가 ‘생략되었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생략될 수 있다’고 하여 마치 담화적 요인에서 생략되는 것처럼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선행 구가 그 앞에 오는 명사구에 대해 서술어 역할을 함을

대체로 알 수 있으므로 생략될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왜 음운적인 요인이 거기에 가세하는지에 대한 그다지 명확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양정석(2001:341-2)도 이에 대해서는, ‘시정곤(1993, 1995)의 통사적 접사설로도 이 점이 해명되지 않는다’고만 언급하였다가 양정석(2001:354)에서 “-이’의 생략이나, ‘-이’가 어미 요소와 함께 삭제되는 현상은 음성형태 부문의 처리로 넘길 수 있다’고 간단히 문제를 봉쇄해 버린다. 김의수(2002)는 이승재(1994)를 빌어 {이}의 생략 조건이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서술성 상실 여부’와 ‘명사화 여부’라는 통사적 조건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설명이, 어미를 남겨둔 채 형용사 어간이 생략되는 현상 자체를 정당화해 주지 못한다. 용언설의 존립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명확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⁰⁾

-
- 10) 심사위원 가운데 한 분은, ‘대학 교수 입니다’ 등 띄어쓰기 오류가 일어나는 예를 들면서 X2와 {이}의 분리 가능성을 제기하고, 따라서 기능동사설의 타당성을 수차례 정당화하는 지적을 주셨다. 그리고 {이}의 생략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략하든 하지 않든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음운론적인 현상일 뿐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기능동사설도 선행 요소에 주격조사가 올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다’는 다른 기능동사들과 달리 대응하는 실질동사도 없고 자체적으로 특별한 논항구조를 가지는 것 같지도 않다는 점에서 과연 기능동사라는 범주에 적합한 언어 단위인지 의심스럽다. 띄어쓰기 오류가 보여주는 ‘교수’와 ‘-입니다’의 명확한 분리 현상에 대해서는, 주로 자음 하나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뒤따라올 경우, 선행 요소와의 구별을 명확히 해 주려는 책략으로 여겨지나 그것이 동사 어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뒷받침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생략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설명이 본고에서 {이}가 생략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과연 실질형태소가 생략된다고 보는 것이 무표적일까 아니면 형식형태소가 생략된다고 보는 것이 무표적일까에 대한, 일의 경중을 판단하는 저울질에서 차이가 생겨나는 것 같다.

4.3 {이}의 문법범주

기존의 논의와 {이}의 기능에 비추어 {이}의 문법범주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서술성’과 관련된 INFL — 앞에서 v로 표시했던 것인데 여기서는 다른 종류의 I들과 구별하기 위해 편의상 ‘I_p’라고 표시해 보자 — 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19) 할아버지는 착한 학생이셨겠습니다.

[CP [KP 할아버지는] [C [I_{MP} [I_{IP} [I_{IP}(=VP) [NP 착한 학생]-이_{IP}]
-시_{th}] -었_{lt}] -겠_{lm}] -습니다_C]

- (20) 할아버지는 노인정에 가셨겠습니다.

[CP [KP 할아버지는] [C [I_{MP} [I_{IP} [I_{IP} [VP [KP 노인정에] 가_V] -시_{th}]
-었_{lt}] -겠_{lm}] -습니다_C]

{이}는 자체적으로는 서술성이 보장되지 않는 NP 등 X₂ 자리에 놓일 수 있는 범주의 언어 단위들을 보충 성분으로 취하여 VP와 등가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서술성’이라는 INFL적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의존적이고 실질적 논항구조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휘범주가 아니라 기능범주에 속한다. {이}는 그것이 선택하는 보충어에 격을 부여할 수 없다.¹¹⁾¹²⁾ 어휘격은 어휘적 서술어만이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그리고 접합 부분을 보면 앞에 오는 어휘범주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구범주와 결합하므로 어휘적 파

11) 지정어에 주격을 담당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12) 여기서 보충 성분 또는 보충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I_p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범주에 해당하는 성분이라는 뜻이다. 반드시 NP만이 아니라 KP 혹은 PP, CP 등에 해당하는 요소들도 올 수 있다.

13) 목적격도 구조적으로 보는 논의가 있지만 자타동사의 구분은 개별 동사의 어휘적 속성에 따르는 것이므로 어휘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에 의해 부여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생접사와 같지 않다.

이상과 같은 관점을 취할 때, ‘이다’ 구문의 부정 짝인 ‘아니다’ 구문에 대한 평행한 분석 가능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아니다’ 구문에서 X1에 후행하는, ‘이다’ 구문의 X2 상당 요소가 주격을 배당받는 것은 그것이 {이}와 직접 성분을 이루는 보충 성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격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정어 자리에 있기 때문으로 파악함으로써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니다’ 구문의 경우, ‘이다’ 구문의 X2 상당 요소가 주격을 배당받으면서도 다시 X1 주어에 대해 서술어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X2 상당 요소는 주격을 배당받으면서도 구조적으로 지시성을 요구받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본고의 논의의 연장선에서 살펴보자면, ‘아니’는 구성상 부사적 요소로 판단되고 (20)의 ‘착하게’와 같이 ‘어휘-충위 서술어’의 보충어의 경우와 유사한 구조 속에 들어 있다. (20)에서 ‘착하게’는 ‘굴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그 아이가 나에게’라는 두 개의 논항과 대등한 위상에 있지 않고 ‘굴다’와만 결합하여 ‘착하게 굴다’를 온전한 서술어로 만들어준다.

(20) 그 아이가 나에게 [착하게/못되게 굴다].

그러나 {이}가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용언의 어간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니다’ 구문에 대해서는, 그런 독립적인 용언으로서의 ‘이다’를 상정한 뒤 ‘아니다’의 어휘화에 따른 재구조화의 예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휘화된 형용사 ‘아니다’는 어휘적으로 위의 X2 상당 요소에 주격을 배당하고¹⁴⁾ 그 형용사 ‘아니다’의 최대 투영(위 (15)의 VP)을 보충 성분으로 취하는 *v*가 X1에 주격

14) 이때의 주격은 어휘적으로 보아야 하며, ‘되다’의 보어나 이중주어문 등에서 심심찮게 나타나는 경우들과 평행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을 다시 배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주요 견해들과 비교해 보면, 본고의 입장이 그것들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주격조사설에서는 실체가 없는 Ø INFL을 설정했었는데, 본고에서는 실체가 있는 {이}가 바로 그 INFL이라는 입장이고 그 앞에 선택되는 NP는 I의 보충어로 주격을 받을 자리에 있지 않다고 보는 점이 다르다.

용언설과 비교해서는, {이}의 기능에 대해 의미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어휘적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형식동사(기능동사)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이}와 선행요소 사이가, ‘하-’ 등 일반적인 기능동사가 허락하는 정도의 조사 개입조차 허락하지 않는 데다가 {이} 자체도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단위성에 대한 견해를 같이하기 어렵다. 다만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구조의 증거가 제시된다면 그런 구조에서 현재와 같이 문법화되는 과정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통사적 접사설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이}를 통사적 차원이라고 해도 파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생과 굴절의 개념을 사용할 것이라면 굴절에 해당한다고 본다. 굳이 체언이 형용사로 파생되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체언과 용언 사이만큼의 간격을 채워주는 기능을 {이}가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용언이 그와 같은 통사적 단위와 어울릴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지만 어휘화 문제는 따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본고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본고는 통사적 접사라는 대범주를 설계하고 {이}가 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의 성격을 밝히는 데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점이 적다고 여긴다.

오히려, 전통적인 용어로 {이}의 문법범주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서술격 조사’라고 부르는 편이 가장 현실에 가깝다. 다만 ‘격’이라는 개념이 서술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어서 그보다

는 ‘서술형(서술어화) 전성조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조사에도 관형형, 부사형 등 다른 전성조사류를 상정하여 또 다른 체계적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또한 문법 체계의 재편을 요구한다.

본고가 이 절에서 제시한 분석과 같이 처리될 때는, {이}를 ‘선어말어미’로 보아, 그 기능이 그 선행 요소에 ‘서술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한다. 이때에는, ‘어간’ 개념이 재고되어야 할 것인데, 어간을 무조건 용언에 대한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21) ㄱ. [NP ... 학생_N]-이-
 R
 S E
 ㄴ. [NP ... 명칭이_N]-이-
 R+Aff.
 S E

‘학생’이 명사이지만 {이}와 같은 특성의 INFL에 상대해서는 어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용언이 {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에 고심하게 되지만 (21ㄴ)과 같이 {이}가 붙는 층위는 일반적 (파생)접사와는 다르며 그 부분을 어간이라 부르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

{이}가 선어말어미라고 하면, 다른 선어말어미는 모든 서술어와 결합할 수 있고 어간에 따른 제약이 없어 보이는데, {이}는 용언 어간을 배제하고 있어(*예쁘-이시었다/*잡-이시었다) 분포상의 제약이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설명의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모든 선어말어미가 어간과의 사이에 전혀 제약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의 경우를 보면, ‘드시다/자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등 높임이 어간의 일부로 어휘화된 경우, 선어말어미 {시}와의

결합이 제약된다(*드시시다). {이}는 {시}보다 더 어간에 가까이 위치하는 INFL로서 용언은 서술성이 어휘화되어 있는 범주이다. 따라서 {시}와 관련된 높임보다 {이}와 관련된 서술성이 어휘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어휘범주를 중시하여 통사적 구성도 그 어휘처럼 파생되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통사적 구성을 중시하여 특정 구성이 어휘화되었다고 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전자의 일반화가 더 무리라고 판단한다.

5. 결론

우리는 ‘이다’ 구문의 {이}의 문법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다’ 구문의 의미해석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의미해석과 통사구조의 대응에서 {이}가 언어적으로 의미 있는 구별을 가져오는지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이}는 직접 선행하는 요소(X2)를 서술어로 만들어 주고 따라서 그 결합과 직접구성성분을 이루는 명사구가 주격과 지시성을 받아 문장의 주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범주적 요소임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기존 논의를 검토해 보면 {이}가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울 뿐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부터 실질용언으로서 충분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는 입장까지 다양하다. 본고의 검토 결과로는 {이}는 X2를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의 문법적 지위를 가늠한다면, 전통적인 용어로는 서술격조사, 파생접사, 굴절어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굴절어미 가운데 선어말어미로 보는 것이 상대적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는 평가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통하여 ‘이다’ 구문의 모든 유형이 설명된 것은 아

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의 가장 기본적인 통사적 기능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초점 등 정보적 의미에 따른 통사구조의 차이, 의미 선택의 문제 등 구체적인 논의들이 더 이어질 필요가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주제를 달리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 Enc, M. 1991.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Linguistic Inquiry* 22. 1-25.
- 고창수. 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국어학회) 22집. 259-269.
- 김의수. 2002a. “‘이다’ 재론.” 「형태론」(형태론연구회) 4권 2호. 349-356.
- 김의수. 2002b. “형식동사 ‘이다’의 문법.” 「어학연구」(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제38권 제3호. 879-905.
- 남기심. 1996. “‘이다’ 구문의 통사적 분석.” 「국어 문법의 탐구 I - 국어 통사론의 문제」. 서울: 태학사. 36-51.
- 목정수. 1998. “기능동사 ‘이다’ 구성의 쟁점.” 「언어학」(한국언어학회) 제22호. 245-290.
- 박철우. 2002. “국어의 보충어와 부가어 판별 기준.” 「언어학」(한국언어학회) 제34호. 75-111.
- 박철우. 2005. “세종전자사전의 ‘이다’ 구문 기술과 표상.”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79-92.
- 송석중. 1993. “‘이다’ 논쟁의 반성.”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 통사구조와 의미해석」. 지식산업사. 388-422.
- 시정곤. 1992. “통사론의 형태 정보와 핵 이동.” 「국어학」(국어학회) 22집. 299-324.
- 시정곤. 1995. “핵이동과 ‘-이/답/히/갈-’의 형태·통사론.” 「생성문법연구」(한국생성문법학회) 제5권 2호. 419-456.
- 시정곤. 2005.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설을 다시 논의함.” 「한국어학」(한국어학회) 28. 55-80.
- 안명철. 1995. “‘이’의 문법적 성격 재고찰.” 「국어학」(국어학회) 25집.

29-49.

- 엄정호. 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국어학회) 18집. 110-129.
- 엄정호. 1993. “‘이다’의 범주 규정.”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 110. 317-332.
- 엄정호. 2000. “‘-이다’의 ‘이’는 조사인가?” 『형태론』(형태론연구회) 2권 2호. 333-343.
- 양정석. 1996. “‘이다’ 구문의 의미 해석.” 『동방학지』(연세대 동방학연구소) 91. 99-134.
- 양정석. 2001. “‘이다’의 문법범주의 의미.” 『국어학』(국어학회) 37집. 337-366.
- 양정석. 2003. “‘이-’ 주격조사설에 대한 반론.” 『형태론』(형태론연구회) 5권 1호. 99-110.
- 양정호. 2003. “‘이다’의 문법범주에 대한 고찰.” 『형태론』(형태론연구회) 5권 2호. 255-271.
- 우순조. 2000. “‘이다’와 ‘아니다’의 상관성 -표지 개념에 의한 분석.” 『형태론』(형태론연구회) 2권 1호. 129-138.
- 우순조. 2001. “‘이다’의 ‘이’가 조사인 새로운 증거들.” 『형태론』(형태론연구회) 3권 2호. 345-358.
- 우순조. 2005. “활용 개념과 소위 ‘이다’와 관련된 오해.”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61-77.
- 우순조. 2005. “‘이다’ 구문에서의 어순 뒤섞기 증거들.” 이정민 외.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그리고 그 너머』. 한국문화사. 443-469.
- 이광정. 2003. “‘이다’ 연구의 사적 고찰.” 『국어문법연구I -품사-』. 도서출판 역락. 367-383.
- 이길록. 1969. “체언의 용언적 기능에 대하여: ‘이다’의 형태론적 분석.” 『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연구회) 15. 24-44.
- 임홍빈. 2005. “정제 밝힘의 형용사 ‘이다’ 문제와 언어.”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5-46.
- 최기용. 1993. On the so-called Copular Construction in Korean. 『언어학』(한국언어학회) 제15호. 397-414.

- 최기용. 2001. “‘-이다’의 ‘-이’는 주격 조사이다.” 『형태론』(형태론연구회) 3권 1호. 101-112.
- 홍재성. 2005. “한국어 계사 연구의 쟁점.” 『한국어 계사 ‘-(이)다’의 쟁점 워크숍』(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1-4.
- 황화상. 2005. “‘이다’의 문법범주 재검토.” 『형태론』(형태론연구회) 7권 1호. 135-153.

박철우(Park, Chulwoo)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708-113

전화 : 031-467-0862

전자우편 : cwpa@paran.com

원고접수일 : 2006. 8. 4.

게재결정일 : 2006. 11. 5.